

3高 역경에도 산업자재 등 매출 성장... 전년대비 13% '깡충'

코오롱인더스트리 3분기 실적

매출 1조2589억, 영업이익 510억
화학·패션부문 등 고른 성장세 보여
4분기 전통적 성수기... 개선 기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가 지속되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매출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

8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22년 3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발표를 통해 매출액 1조 2589억원, 영업이익 51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제조부문에서 타이어코드, 아라미드 등 산업자재 주요 제품의 성장과 화학 및 패션부문의 고른 매출 성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필름·전자재료부문의 고객사 수요 감소와 중국 내 도시 봉쇄 조치 장기화 등의 대외 악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감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옥

/코오롱인더스트리

산업자재부문은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운임 감소와 교체용·신차용 타이어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난 9월 베트남 공장 증설로 향후 추가 매출 확대와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라미드'도 5G 광케이블 보강재 시장의 성장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와 고성능 브

레이크 패드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더블업(Double-Up) 증설이 내년 하반기 완료되면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학부문은 석유수지의 경우 원료가 안정세와 함께 수요가 지속 유지되고 있으나 에폭시수지(epoxy resins)는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봉쇄에 따른 수요 둔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

다. 에폭시수지는 일종의 접착제로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선박 도장에 주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토목·건축·자동차·전기·전자·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필름·전자재료부문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와 함께 고객사 재고 축소에 인한 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패션부문은 3분기는 전통적인 패션비수기 상황 속에서도 '3분기 기준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브랜딩과 상품력 개선에 집중해 아웃도어와 골프를 필두로 전 브랜드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스포츠는 전략상품의 상품력 강화와 지속 가능 아웃도어 브랜딩을 통해 기존 고객은 물론 MZ세대 신규 고객 유입을 이끌었다"며 "지포어 등 골프 브랜드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매출 개선에 기여했으며, 기존 남성복과 여성복, 잡화 등도 고르게 매출 신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가 선방 중"이라며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4분기는 패션부문의 전통적인 성수기이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7일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을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하는 등 그룹 주력 제조사업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전면 교체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주사인 ㈜코오롱 사업관리실장과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글로벌 등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쌓은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성장을 주도할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각 계열사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 中 친환경 상용시장 공략 본격화

CCM 업무협약... 기반 구축 맞손 中 정부·기업 대상 수요 확보 나서

현대자동차가 중국 친환경 상용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베이징 왕징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중국 최우수 국제금융투자사인 CICC의 자회사 CCM과 중국 상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의 중국 지주사인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HMGC) 이혁준 전무, CCM 쉬중차오 총경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국 및 글로벌 사업장을 보유한 중국 내 최우수 국제금융투자기업 CICC와 자회사 CCM의 광범위한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대차 상용사업의 전동화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상품 판매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사업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



현대차는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베이징 왕징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중국 최우수 국제금융투자사인 CICC의 자회사 CCM과 중국 상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차

됐다. 현재 중국 상용 시장은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내연 기관 차량 중심에서 친환경·스마트 차량 중심으로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중국 내 정부 및 기업 대상으로 선제적 수

요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상용차 제조공장 및 R&D센터를 기반으로 상용 친환경 차량 연구·개발, 생산, 딜러 운영 등을 담당하고, CICC/CCM은 중국 내 정부, 국유기업, 대형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 산하 펀드 조성을 통해 신규 판매 채널 구축을 비롯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더욱 책임감 있는 협업과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지분 거래 계약도 진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양사 실무간 협의를 통해 연내 합의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해외에 설립된 수소연료전지 생산법인 'HTWO 광저우'의 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럭을 도입하고 수소 브랜드 이미지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중국 상용 시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구현모, KT 대표이사 연임 의사 표명

KT 이사회, 우선심사 진행 예정

구현모 KT 대표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連任) 의사를 밝혔다. KT 이사회는 구 대표의 연임 의사를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KT는 8일 현 대표이사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올해로 임기 3년차를 맞았다. 지난 2020년 KT 내부 인사 출신으로 12년 만에 대표이사에 오른 구 대표는 '디지털' KT를 공식 선언하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사업 먹거리를 발굴해낸 바 있다. 디지털 KT로 기업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KT 이사회는 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KT 정관에 따르면, 내년 3월 정기주



구현모 KT 대표

주총회 3개월 전에 대표이사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려면 시기적으로 금주에는 구 대표의 연임 심사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KT 이사회는 총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구 대표와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구 대표는 1987년 KT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T&C부문 T&C운영총괄, 비서실장, 경영지원총괄, 경영기획부문을 거쳐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채윤정 기자

SKT, T멤버십 기반 ESG서비스 '지구를 지킬 때' 론칭

에버온 등 기업·브랜드 5곳 협력

SK텔레콤이 ESG 협력으로 '친환경 소비'를 이끌고 있다.

SKT는 '지구를 지킬 때' 론칭을 통해 전기차 충전·렌트, 업사이클링 의류나 친환경 화장품 구매 등 착한 소비를 지원하고, T 멤버십 이용 고객들의 친환경 제품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ESG 경영을 실천 중인 제휴사들과 함께 T멤버십 기반 ESG 제휴 서비스 '지구를 지킬 때'를 8일 론칭한다고 밝혔다.

'지구를 지킬 때'는 ESG 확산을 위

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아이템 구매 시 T멤버십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KT는 '지구를 지킬 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분야 티맵 모빌리티와 에버온, 전기차 렌트 분야 그린카, 업사이클링 패션 분야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친환경화장품 분야 이니스프리 등 친환경 기업·브랜드 5곳과 힘을 모았다.

티맵모빌리티, 에버온과 함께하는 전기차 충전 할인은 소비자가 전국 에버온 충전기에서 티맵(TMAP) 전기차 충전 간편결제로 전기차 충전 시 10% 할인 혜택(월 3회, 회당 최대 3000원 할

인)을 받는 서비스다.

그린카는 기존에 제공하던 T멤버십 고객 대상 할인혜택에 더해 친환경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대여할 때 예약 결제에 한해 월1회 10% 할인을 제공한다.

코오롱FnC는 업사이클링 기반 패션 브랜드 'RE:CODE'를 코오롱물에서 구매할 때 T멤버십에서 받은 쿠폰을 적용하여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온라인 및 앱 ESG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존을 클릭해 T멤버십에서 받은 쿠폰 번호를 입력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echo@

넥슨, 지스타 출격 대기... 슬로건 '귀환'

9종 출품작, 현장부스 공개

넥슨이 올해 지스타2022의 슬로건을 '귀환'으로 정하고 선보일 9종의 출품작과 현장부스를 소개했다.

지스타에 4년만에 참여하는 넥슨은 9종의 출품작을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해보고 경험 수 있는 데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넥슨은 8일 넥슨 판교 사옥 1994홀에서 '넥슨 지스타 2022 프리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선보일 출품작 9종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넥슨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22'에서 BTC관 단일 최대 규모인 300부스를 운영한다.

넥슨이 이번 지스타2022서 출품하는 작품들은 구체적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퍼스트 디센던트 ▲카트라이드: 드리프트 ▲테이브 더 다이버다.

그 외에 ▲프로젝트 AK(Arad Chronicle : Kazan)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회전 온라인 ▲갯뿔: 클래식 오브 갯 ▲나이트 워커 등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도 선보일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